

도, 국비 사상 최대 12조 1천억 원 확보

남경필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차원의 확보 노력 성과

국비 12조 1642억원 확보 전년대비 5394억 원 증가 외연 확장과 경제·일자리 등 역점사업 국가예산 반영 확대

도가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경기도 역대 최대인 12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2조 1642억원으로 지난해 11조 6248억원보다 5394억원(4.6%) 늘어난 규모다. 관심이 큰 SOC의 경우,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은 3조 1814억원을 확보, 15.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82억원(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증가(10% 내외 추정)를 제외하면 새정부 정책과 국비확보 노력으로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833억(증 663억) △이천~문경 철도 2876억(증 596억)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405억(증 100억) △인천발 KTX 235억(증 100억)

△수원발 KTX 179억(증 100억)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81억(증 56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51억(증 21억) 등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502억 △수도권서남부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390억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 조성 204억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2억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 34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정부예산안에는 없었으나 △문산~임진각 전철화 50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27억원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8억원 △국도3호선 연천~신탄 도로건설 2억원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5억원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장비지원 27억원 △세월호 추모사업 30억원 △소요산역 시설개량 10억원 △경부선 군포역 시설개량 200억원 등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4·6·11월 등 3차례에 걸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장과, 이재을 행정1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20여 차례 중앙부처와 회의를 찾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지난 11월 17일 국회 백재현 예결소위원장을 만나 면담한 남경필 도지사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틀처럼

도, 우수 공동주택 시공사 4곳 선정

- ㈜포스코건설 · ㈜대우건설
- ㈜호반건설 · ㈜KCC스위첸
-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가 ㈜포스코건설 · ㈜대우건설 · ㈜호반건설 · ㈜KCC스위첸 등 4개 시공사를 아파트를 가장 잘 지은 우수 공동주택 건설 시공사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도내 7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4개 시공사와 함께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남 더샵리버포레, ㈜대우건설은 양주 옥정 센트럴푸르지오, ㈜호반건설은 오산 세교 호반베르디움, KCC스위첸은 이천 KCC스위첸을 시공했다.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천 KCC스위첸을 감리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등 아파트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도, 시·군, 건축·토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도는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석가신정원 따위에 돌을 모아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 계류시설 등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주민공동체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선정이유로 꼽았다. 또, 지하주차장 바닥에 결로 예방을 위한 환기 캡 설치,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전등 적용, 빗물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평가결과 우수 사례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열린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도시/주택-공동주택 우수감리 및 시공 단지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시공·감리자 등 우수 공동주택 건설 기여자는 연발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매해 우수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해 공동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우수 시공·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57개 업체와 201명의 유공자를 선정·포상한 바 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도, 철도역 환승센터 추가 조성 ...

내년 8월까지 후보지 선정 용역 추진

중기계획 수립 착수 철도역 환승거점 발굴 각시·군 조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당부

도가 도내 주요거점에 철도역 환승센터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2월 14일 밝혔다.

철도역 환승센터는 철도역과 대중교통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로 철도와 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수단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도내에는 지난 2015년 부천 송내역에 첫 번째 환승센터가 들어선데 이어 올해 5월 수원, 11월 오산역에도 환승센터가 있다.

도는 이들 3개 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거리는 평균 163m, 환승시간은 평균 2분 19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30년간 총 편익은 사업비 387억원의 2.8배인 1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환승역 설치 후보지 선정용역을 위해 내년 8월까지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이용수요와 연계교통망 수준, 개발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4개 등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환승센터 추가개발에 대한 각시·군의 관심을 강조했다.

12월 현재 용역결과에 따르면 여주·시흥시 등 4개 시·군이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나머지 시·군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참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기용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장은 "환승센터 1개소 당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

다"면서 "용역을 통해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신속하

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